

# 마지막까지 함께... '단짝 친구' 천국가는 길도 '동행'

'이태원 참사' 2명 광주서 발인 엄수

### 초등부터 절친... 1시간 차이 발인 나란히 영락공원에 안장

### "날 두고, 날 두고..." 엄마의 통곡 유족·지인들 온통 눈물바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단짝 친구였던 김모(24)씨와 오모(24)씨가 천국가는 마지막 길도 '동행'했다. '이태원 헬러윈 참사'로 숨진 광주·전남 희생자들 중 단짝 친구였던 김씨와 오씨의 발인이 1일 1시간 여 차를 두고 엄수됐다. 두 친구의 발인이 진행되는 동안 장례식장은 애통함의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참사 희생자인 오모(24)씨와 김모(24)씨의 빈소가 차려진 광주시 광산구의 한 장례식장에서는 이날 오후 12시 30분 오씨의 발인이 먼저 진행됐다. 발인이 진행되는 내내 유족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오씨의 어머니는 "아직 (딸을) 보낼 준비가 안됐다"며 땅을 치며 흐느꼈고, 오씨의 아버지는 그를 끌어안으며 하염없이 등을 토닥였다. 오씨 아버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아침부터 마지막 조문객들에게 애써 친착하게 대하려고 노력했다. 발인 시각이 다가오자 겨우 진정됐던 오씨의 어

머니는 다시 눈물을 흘리며 "날 두고... 날 두고... 내 딸아"를 연신 반복했다. 오씨의 여동생도 어깨를 들썩이고 잇따라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면서 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오씨의 영정사진을 든 오씨의 친구도 친구의 마지막 길을 받아들이지 못한 듯 사진을 수차례 다시 보다가 결국 울음을 쏟아냈다. 이날 오씨의 친구들 10여 명은 오씨가 생전에 갖고 싶다고 했던 캐릭터 열쇠고리(키링)와 오씨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담은 편지를 납골함과 함께 영락공원에 보관했다. 1시간여 뒤 같은 장례식장에서 오씨의 단짝 친구인 김씨의 발인도 엄수됐다. 발인 이후 화장터로 이동하는 동안 김씨의 어머니는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어 부축을 받으며 장례식장을 나섰다. 김씨와 오씨와 같은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들도 두 친구가 천국으로 가는 마지막 길을 함께 했다. 김씨가 화장장에 들어서자 김씨의 어머니는 "예쁜 우리 딸아 함께 하늘나라로 간 친구(오씨)와 잘 놀고 있어 사랑해"라고 가려진 유리창에 대고 말했다. 김씨의 친구들도 "친구가 우리 꼭 웃으면서 다시 만나자", "(친구야) 벌써 보고 싶다. 진짜 많이 사랑해", "꿈에서 기다릴게. 너 길 잘 찾잖아. 너가 와 줘"라며 흐느꼈다. 오씨는 지난 2월부터 서울의 한 은행에 계약적으로 입사했으며, 김씨는 약 3개월 전 서울의 한 백화



광주 광산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1일 '이태원 헬러윈 참사'로 참변을 당한 오모씨의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

점에 입사해 함께 서울 생활을 했다. 참사 당일 두 사람은 오씨의 정규직 전환 채용시험 필기전형 합격을 기념하고자 이태원에 갔다가 변을 당했다. /글·사건·민천기 기자 hyunki@kwangju.co.kr

## 사건 인사이트

### 세 모녀 비극 내몬 사기범 징역 10년 선고

#### 10명에 150억 가로채... 빌린 돈으로 이자 주며 '돌려막기'

4억 여원의 사기를 당해 두 딸을 살해하고 본인까지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세 모녀 비극'의 원흉인 사기범이 10년 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혜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돈을 빌려주면 은행 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방식으로 지인 10명을 속여 150억 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A씨 자녀의 담임교사부터 자녀의 친구 부모, 봉사모임으로 알게된 지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알게된 지인 등으로 다양했다. A씨는 지인들 대부분에게 고수익으로 이자를 주겠다고 속였다. 특히 "무기명 채권, 어음 등을 거래해 고수익을 내고있다", "중소기업에 투자해 수표나 어음을 거래하면 큰 수익이 생긴다", "나주혁신도시와 전주혁신도시가 개발되기 전에 국책사업의 정보를 미리 알아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 등 큰돈을 벌 것처럼 속여 접근했다. A씨는 매월 3~8%의 높은 이자를 약속하며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다. 지인 한명 당 적게는

2000만원에서 60억원까지 뜯어냈다. 하지만 A씨는 무직인 상태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빌린 돈으로 이자를 주며 일명 '돌려막기'를 하며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와 같은 학교 학부모 사이였던 A씨에게 4억 여원을 빌려준 B씨는 사기당한 것을 알고 두 딸을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B씨는 지난 3월 경찰에 사기 신고를 하겠다고 집을 나선 뒤 담양군 한 다리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20대와 10대인 두 딸을 숨지게 하고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상당수 피해자가 A씨로 인해 형언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고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며 "한 피해자는 A씨의 범행으로 충격을 받고 절망한 나머지 딸들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일부 피해자들도 가족 관계가 파탄나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일부에게 100억원 가까운 돈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점,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5·18 때 경찰서 총 쏘쳐 시민군에 건넨 60대 무죄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의 한 경찰서 무기고에서 소총을 꺼내 시민군에게 전달한 60대 남성이 42년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혜선)는 내란실행, 포고령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던 A(66)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80년 5월 22일 오후 6시께 해남경찰서 무기고에서 M1 소총 204정을 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무기고에서 훔친 소총을 시민군에게

나눠줬다. 이에 앞서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께 나누시 한 차고에서 12t급 트럭을 몰고 나와 시민 10여명을 태우고 "전두환 몰라가라, 비상계엄 해제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여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 시기, 동기, 대상,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5·18과 관련된 행위 또는 5·18 직후 발생한 현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형법상 정당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5개월 영아 사망' 20대 부모 상습방치 혐의로 영장 신청

경찰이 모텔에 5개월 된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부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5개월 된 자녀를 장시간 모텔방에 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20대 초반 부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5개월 된 자녀를 모텔 2층 객실에 홀로 4~5시간 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달 8일 오전 6시 45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모텔에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아이에 대한 1차 부검결과는 '사인 미상'으로 나왔고, 현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밀 2차 부검을 진행중이다. 경찰은 사건 당일 부모의 동선을 파악해 아이를 모텔방에 혼자 놓아둔 채 장시간 함께 외출한 정황을 확인했다. 사고 당일 뿐 아니라 수회에 걸쳐 동일하게 아이를 방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조만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목포 정박 화물선 베트남 선원 밀입국 적발 구속

화물선 선원인 베트남 국적 30대 남성이 불법체류를 위해 밀입국하다 구속됐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선원 A(34)씨를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30분께 목포시 연산동 삼진산업단지에서 정박 중인 파나마 선적 화물선에서 무단이탈해 입국심사 없이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박에서 무단으로 내려 철조망을 넘어

항구를 빠져나와 지인의 차량을 타고 영암 삼호읍까지 이동했다. 출입국 사무소는 목포출장소, 목포해양경찰서와 함께 합동 검거반을 꾸려 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이동 경로를 확인해 21일 오후 8시10분께 지인이 마련해준 숙소에서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밀입국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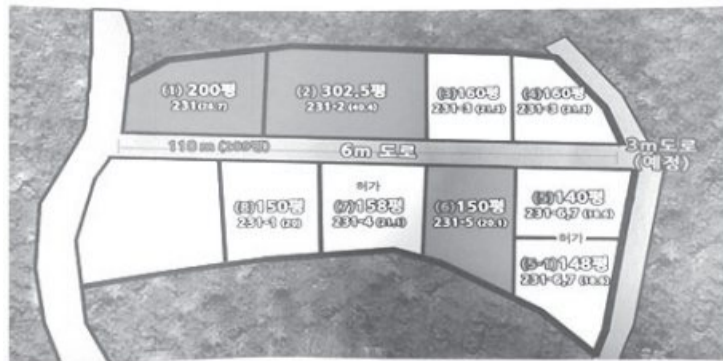
## 장성토지 매매 (분양)

## 경매교육 [ 기초반 ]

- ▶ 장성댐 5분 (광주에서 20분)
  - ▶ 즉시 건축 가능 (토목공사 완료)
  - ▶ 공기최고(축사없음), 소나무 숲
  - ▶ 장성댐, 등산로 (남동향)
- 100평, 150평, 200평, 700평 (분할 가능)



해누리 전원토지분양 (상오2안)



### \* 경매 실전 전문반 모집 (10명)

-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 ▶ 경매 물건 추천 ◀

광주	광산구 우산동 (근린상가) ▶ 감정가 6억1천 → 최저가 3억4천
	광산구 수완동 (윤슬의아침) ▶ 감정가 6억3,300 → 최저가 3억5천
	서구 풍암동 (근린주택) ▶ 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4억5천7백
	서구 매월동 (임야) ▶ 감정가 6억2,700 → 최저가 2억2천
	북구 신안동 (공장) ▶ 감정가 13억 → 최저가 9억2천
	서구 매월동 (빌라) ▶ 감정가 9억5천 → 최저가 5억3천
	남구 봉선동 (아파트23평) ▶ 감정가 2억 → 최저가 1억4천
	북구 용봉동 (근린상가) ▶ 감정가 32억 → 최저가 11억6천

010-6670-9800

010-2614-9801